

# 사순절 40일 특별새벽기도



2월11일(목)새벽~  
3월27일(주일)부활절까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응답 받는 좋은 기회로 모인다.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예년보다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의 뜻 깊은 새벽기도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기를... <편집부>

## 말레이시아 바투셈빌라 제천백운교회 봉헌예배

말레이시아에 가면 바투지역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오랑아슬리라고 불리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백운교회는 2013년 9월 바투9지역에 바투셈빌라 제천백운교회를 건축했다. 현재 42명의 원주민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선교원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 백운교회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짐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소망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번 4월 백운교회는 말레이시아에 봉헌예배를 드리러 간다. 총 16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자 한다. 우리교회가 방문하기전 선교사가 와서 그곳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 줄 것이고, 우리교회는 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다. 원주민들을 향한 백운교회의 헌신과 사랑이 제2, 제3의 교회를 소외된 지역에 세워 한 생명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신상균 목사>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삼상 16장 7절)  
[숨은그림 : 물고기, 초승달, 새, 왕관, 빵(꼬마바케트)]

### 2월호 숨은 그림찾기 응모권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2월28일 마감/추첨)  
<숨은그림 : 물고기, 초승달, 새, 왕관, 빵(꼬마바케트)>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2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 백운교회 소식

#### ▶충북연회 교회학교 교사표창



지난 24일 충북연회에서 수여하는 교사표창을 본 교회를 대표해 이순희권사가 받았다.

#### ▶교회학교 교사세미나 참석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난 23, 30일 제천시 시온성교회에서 열리는 2016년 제1차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는 “치유자, 친구, 엄마, 통로로써의 교사”라는 주제로 총 8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눈 마주치기, 감정 알아내기, 공감하기, 칭찬하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였다.<김대현집사>

### 알림

- ❖출산=1월20일 이향숙성도 득녀
- ❖개업=1월20일 박미숙성도 백운정육점(구 농장직판식육점)

### 1월호 정답자 발표

1월호 추첨결과 ▶김경자(평동) ▶이수길(응평)▶박미순(원서)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2016년  
“듣고!, 믿고!, 따르고!”

[제23호] 2016년 2월 7일 발행



담임목사 신상균  
전기줄 위에 참새 두 마리가 앉아 있었다. 한 마리는 암컷, 한 마리는 수컷, 두 새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다. 이때 포수가 참새를 발견하고 총으로 쏘기 위해 조준을 했다. 어느 쪽 새를 쏠까 하다가 살이 찐 수컷새를 쏘기로 결정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빵”  
총에 맞은 수컷새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추스르면서 말했다.  
“이럴줄 알았으면 자리를 바꿔 앉는건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암컷 참새가 빠르게 날아 포수의 어깨위로 갔다. 그리고



Since 1904  
“꿈을 이루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ome Page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 “세배 받으세요~. 세뱃돈 받아라.”

포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포수 아저씨 저 참새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쏘세요”  
매우 씩씩한 이야기다. 요즘 신문을 보면 이보다 더한 기사들이 세상을 슬프게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할까?  
성경은 이를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설 명절이 다가온다. 설 명절에는 모두 덕담을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큰 절을 하고 어른들은 세뱃돈을 준비한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로, 내가 받았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배와 세뱃돈을 줄 때 서로 즐겁게 웃는 세상이 된다. 일년 내내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자녀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처럼 덕담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2016년 설을 맞이하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운교회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